

이홍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역감정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탕평인 사나 적절한 예산 분배 등이면 족할 뿐. 소리 내어 떠들기만 해서는 일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바둑알과 더불어 지역감정도 그 중 한 가지다. 누가 지역감정을 살려내는가. 정치인들이다. 지역감정은 정치인들이 악용하고 부풀리면서 더욱 굳어졌다. 대표적인 인물로 두 사람이 떠오른다. 이효상과 김기춘이다.

이효상(1906~1989)은 지역감정 악용의 비조(鼻祖)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후보가 맞붙은 1971년 7대 대선 당시, 공화당의 이효상 국회의장은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인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다."

이효상이 지역감정 조장의 효시(曺矢)라던 김기춘(75·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종결자(終結者)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맞붙은 1992년 14대 대선 당

시, 부산의 한 음식점(조원 복집)에서 비밀회동이 열린다. 김기춘을 비롯한 부산의 각 기관장들이 다 모였다. 이 자리에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우리가 남이가?'다. 경남 출신과 경북 출신 가리지 말고 뭉치는 거였다.

'우리가 남이가?'는 원래 경상도에서 널리 쓰이는 겸양의 표현이다. 무언가 도움을 받은 친구가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무뎡뎡하게 던지는 말인 셈이다. 그러면 상대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기 마련일 터.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배려의 말인 셈이다. 이렇게 좋은 말을 그들은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통탄할 노릇이다.

지역구도가 깨지고 있다

어찌 됐든 이런저런 이유로 선거구의 지역구도는 견고해졌다. 그러나 그 오랜 지역구도가 이제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만 봐도 그렇다. 대구의 김부겸이 야당 간판을 걸고도 40% 이상 지지율로 돌풍을 일으켰지 않은가. 그 뿐만

이 아니다. 광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으니. 그곳 대구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의원 9명이나 탄생한 것이다.

대구와 비교하면 미미하지만 광주에서도 작은 바람이 불었다. 광산구 기초의원에게 출마한 박삼용 후보가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승리한 것이다.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광주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무소속 후보들이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것도 표심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선만 되면 지역 주민을 외면하고 오직 공천에만 신경 쓰는 야권의 일당 독식 구도에 난더리가 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즘 순천·곡성이 들썩이고 있다. 이정현 전 후보 수석이 새누리당 후보로 7·30 보궐선거에 나오기 때문이다. 출마의 변은 당연히 '지역구도 타파'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누군가 이 지역구라는 엄청난 장벽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1m 구멍을 뚫고, 다른 사람이 또 1m를 뚫

고, 그 다음 사람이 또 1m를 뚫다 보면 지역구도 장벽이 무너질 것이다."

벌써 한 답을 냈다. 그의 고향 출마를 권유하는 칼럼(본보 6월13일자 2면)을 쓴 적이 있다. '대구 김부겸은 광주의 이정현'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나간 직후 그는 주소지를 고향인 곡성으로 옮겼다. 이어 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40%가량 득표해 가능성을 보인 그는 이번엔 "출마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선을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과연 그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변수가 많겠지만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당선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론을 보다 정확히 말하면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우려를 하는 측은 유권자 수를 비교하기도 한다. 몰표가 예상되는 그의 고향인 곡성은 2만6872명. 이에 비해 순천은 21만4889명이다. 하지만 그가 순천 중앙출신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가 승리를 확실하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그의 상대로 '진노(진 노무현) 계열의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가 확정됐다'는 점이다. 서 후보는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에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2011년 초 의원직을 잃은 전력이 있다. 상대가 어찌 됐든 흠결이 있다는 점은 이정현에게는 고무적이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진노에 대한 호남의 반감'이 아직 여전한 것도 그에게는 유리한 점이다.

이번엔 진짜 해 볼 만해

예상되는 '야권의 분열'도 이정현의 선전 가능성을 점치는 요인이다. 순천·곡성은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의 지역구. 이를 도합했다면 같은 당 이성수 전 전남지사 후보가 가세했다.

여기에 구회승 변호사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새정치연합·통합진보당·무소속이 총출동한 것이다. 이 같은 다자(多者)구도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표의 분산'은 이정현의 입장에서 불감청고소원(不敬請 固所願)일 것이다.

선거에서 자주 등장하는 '언더도그 효과'(underdog effect)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싸움에서 밀어 끌린 개가 이겨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뒤지는 사람에게 동정표가 돌리는 현상이다. (물론 이는 이정현이 야당 텃밭의 여당 후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 지지율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정현은 "호남 최초로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변혁이 순천·곡성에서 시작돼 호남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기록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과연 순천·곡성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아를 떠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솔 만한 인물'을 키우는 정치적 변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관성대로 2번을 짚을 것인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민심은 풀이치려 바람보다 먼저 높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 서기에, 다만 지금 '호남 지역에 여당 의원 하나 있어도 좋겠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광주 청소년 인구 20년 후엔 30% 줄어든다

호남통계청 '광주·전남 청소년 통계' 전남은 37% ↓ ... 지난해 다문화가정 학생은 늘어 중고생 흡연율 광주 1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4 광주·전남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 청소년 인구는 광주가 각각 34만4000명, 32만4000명으로 전년에

다 무려 30.4%와 36.7%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말 현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학령인구(6~21세)도 광주는 32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4% 감소했고 전남도 31만9000명으로 전년도 32만7000명보다 2.3% 줄었다. 반면 국제결혼가정 학생수는 광주, 전남 모두 늘었다. 광주는 1176명으로 전년도 1052명에 비해 11.8%, 전남은 4120명으로 전년도 3716명보다 10.9% 증가했다.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광주가 42.2%로 전국 평균 41.4%보다 0.8%포인트 높은

광주·전남 금융자산 10억 이상 5200명

전국에 16만7000명... 광주, 광역시 중 가장 적어

광주와 전남에 금융자산 10억원이 넘는 자산가는 52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6대 광역시 중 최하위를 차지했고 전남은 경남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쳤다. 10일 KB금융연구소가 발간한 '2014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해 2700명에서 100명 늘어난 2800명, 전남은 지난해 2200명에서 200명이 증가해 2400명에 달했다. 이는 각각 3.7%와 9.1% 증가한 수치로 전국평균 증가치인 2.5% 보다는 높지만 지난 2012년 평균(14.8%)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치다.



광주와 전남에 금융자산 10억원이 넘는 자산가는 52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6대 광역시 중 최하위를 차지했고 전남은 경남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쳤다. 10일 KB금융연구소가 발간한 '2014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해 2700명에서 100명 늘어난 2800명, 전남은 지난해 2200명에서 200명이 증가해 2400명에 달했다. 이는 각각 3.7%와 9.1% 증가한 수치로 전국평균 증가치인 2.5% 보다는 높지만 지난 2012년 평균(14.8%)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치다.

주말 영화관 변신... '나주문예회관' 관객 2만명 초읽기

나주 작은영화관 운영해보니... 주말 관객 2만명 초읽기

영화관인 CGV와 지난해 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올해부터 정식 1년 계약을 맺고 문예회관에서 영화를 상영 중이다. 지난 5월부터 두 달간은 문예회관 내부 공사로 영화상영을 하지 못했지만 주말에는 평균 관객이 150명 선이다. 전국 동시 개봉영화만 상영하며, 인기작은 1000여 명

2014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영광군향우회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 I.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II. 구비서류
- III. 선발일정
- IV. 신청방법
- V. 유의사항

전남도립대학교총장 초빙 공고

1. 자격요건
2. 심사방법
3. 제출서류
4. 접수기간
5. 접수장소
6. 기타사항